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와 혁명*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후기 장편소설들을 중심으로

박종소**

[초 록]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의 작품은 그 주인공들이 실제 당대의 정치적, 혁명적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물들로 그려질 뿐만 아니라, 선악의 궁극적인 문제들과 세계의 부조리와 신의 존재에 대한 논의를 거쳐, 니힐리즘과 무신론적 사회주의의 가공할만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전면화하고 있다. 성기계는 1840년대부터, 촘촘하게는 1860년대-1880년대로 집중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 위대한 소설들(『죄와 벌』(1866), 『백치』(1868), 『악령』(1871-2),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1880)) 속의 배경은 20세기 초에 발생한 세 차례의 러시아 혁명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배아가 성장하는 시공간이다.

우리가 베르다예프(Н.Бердяев)의 러시아 사회주의 이념의 발전 3단계 설을 받아들인다면 도스토예프스키가 경험한 사회주의는 전 2단계, 즉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인민주의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전체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교수

적으로 후기 장편소설에서 보이는 작가는 혁명적 인텔리겐치아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한가? 도스토예프스키의 혁명적 인텔리겐치아에 대한 거부는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혁명적 운동이 실현하려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무신론에 입각한 사회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정신의 자유의 부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가가 보기에 인텔리겐치아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혁명은 빵과 물질적인 행복을 위해 정신의 자유를 소수의 무리에게 양도하는 사회를 가져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초인 같은 존재가 지배하는 전제정의 사회로 발전할 것이었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 4대 장편소설 속의 니힐리스트, 사회주의자, 혁명가들을 모습을 분석하면서, 작가의 예술적, 정신적, 영적 예표의 인물들과 사회 속에서 떠오르는 러시아(혹은 세계)에 대한 작가의 고발과 경계를 주목한다.

1. 들어가는 말

주지하다시피, 20세기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이해되는 러시아 ‘10월 혁명’은 러시아 사회가 갖고 있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일시에 해소하고자 한 사건이다. 1917년 ‘2월 혁명’을 통해 짜르 전제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임시정부 체제가 성립된 후, 당시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정당의 소수파에 불과했던 볼셰비키세력이 약 8개월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7월의 ‘무장시위’와 8월의 ‘코닐로프 쿠데타’를 거쳐 혁명의 수호자로서의 권위를 증대시키면서, 8월 말 9월 초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의 소비에트에서 자신들의 결의안을 채택시킬 정도로 소비에트 내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성장시키고, 10월 초 레닌의 무장봉기를 통한 권력 장악 노선이 당

중앙 위원회에서 채택되면서 페트로그라드의 소비에트가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쟁취하게 된다. 곧 2차 전국 소비에트 대회를 기점으로 촉발된 임시정부 수반 케렌스키와 볼셰비키의 충돌은 볼셰비키가 임시정부를 전복하고 소비에트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세계사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완결되었다.)

러시아 10월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원인 및 배경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다. 특히 혁명의 원인과 배경에는 러시아 국가체계의 문제, 러시아 사회의 농민문제, 러시아의 산업화와 노동문제, 반정부 세력의 등장 등이 지적된다. 그러나 이런 원인과 배경의 중심에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갈등과 반목,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 즉 러시아 10월 혁명은 사회집단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들이 충돌하면서 혁명의 방향과 결과가 결정되는 ‘다중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러시아 10월 혁명은 단순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1905년 혁명에서 1917년 2월, 10월 혁명에 이르는 20세기 초의 10년 남짓의 단기간의 대변혁의 혁명이다. 즉 적어도 19세기 말까지 러시아는 외부적으로는 짜르를 제어할 헌법제도나 법률적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중의 참정권과 결사의 자유도 인정되지 않았던, 짜르가 전권을 소유한 전제정의 국가였다.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선행되고 있었다. 1861년 알렉산드르 2세와 계명 관료 주도로 단행된 농노해방을 비롯하여, zemstvo(земство)의 도입, 사법권의 독립확대, 직업의 자유, 계몽된 신세대 관료의 진출 등의 정치사회적 변화의 에너지를

-
- 1) 알렉산더 라비노비치, 『1917년 러시아 혁명:노동계급이 권력을 잡다』, 류한수 옮김, 2017, 책갈피. 이 책은 1917년 2월에서 10월 혁명에 이르는 과정을 거의 일자별로 매우 상세하게 비교적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는 미덕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 2) ‘다중혁명’ 개념의 이해는 박상철 교수(전남대 사학과)의 ‘러시아 혁명사 특강’(서울대학교, 2017년 10월 20일)에서 빚지고 있다.

축적하고 있었다. 또한 1870년대 이후 추진된 급격한 산업화 정책과 국가 주도의 철도건설, 산업노동자의 증대와 열악한 노동조건, 높은 외국 자본 비율, 노동운동의 과격화와 경찰사회주의의 충돌, 노동자와 혁명적 지식인의 결합 등은 러시아 사회의 경제사회적 토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곧 19세기 후반기에 점진적으로 진행된 러시아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러시아 사회의 앙시앵 레짐의 본질에 점차 균열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이어지는 1880년대-1890년대의 반동적 운동 사이의 긴장된 대립과 갈등이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혁명의 폭발을 낳게 되었다.³⁾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1821-1881)와 러시아 혁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성기게는 1840년대부터, 촘촘하게는 1860년대-1880년대로 집중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 위대한 소설들(『죄와 벌』(1866), 『백치』(1868), 『악령』(1871-2),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1880)) 속의 시공간은 러시아 혁명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배아가 자라는 곳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 작품들은 크게 몇 가지 관점으로 이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작품이 발표되었던 시기의 동시대인들이 이해했던 관점으로 1865년에서 1880년에 이르는 러시아의 현안들의 배경과 소설을 연관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작가의 후기 소설들을 ‘새로운 기독교’의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다. ‘새로운 기독교’의 관점은 부분적으로 『죄와 벌』, 『백치』, 『악령』에서도 발견되지만, 특히 그의 마지막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주인공 알료샤 카라마조프와 조시마 장로의 형상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 번째는 후기 소설들을 그의 고백적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1864)와 정신적인 체험의 비극적인 핵심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관점으로 그의 소설들의 철학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소설들을 멜로 드라마적인 사건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들로 취급하며 읽는 것이다.⁴⁾

3) Reginald E. Zelnik (1997), “Revolutionary Russia 1890-1914”, *Russia: A History*, Ed., Gregory L. Freeze, Oxford Univ. Press, pp. 200-230.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의 독자들은 그의 작품을 앞의 어떤 관점에서 읽든 결국 작가가 ‘러시아 혁명’의 주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선 그의 작품의 주인공들이 실제 당대의 정치적, 혁명적 사건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으며, 또 ‘새로운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의 소설을 읽을 때에도 그의 소설들은 선악의 궁극적인 문제들과 세계의 부조리와 신의 존재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니힐리즘과 무신론적 사회주의의 가공할만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전면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르스키도 지적하고 있듯이⁴⁾ 도스토예프스키 후기 소설을 당대 현실에 대한, 특히 혁명과의 직접적인 연관 속에서만 읽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비록 그의 후기 소설이 쏟고 있는 당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고통 받고 학대받는 인간에 대한 박애주의적 연민, 구체적이고 정교한 디테일, 등장인물들의 언어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으로 읽는 것이 일견 타당하지만, 동시에 그의 소설들은 알렉산드르 II세 치하의 실제적인 러시아의 삶의 묘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제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소설 작품들은 곤차로프, 투르게네프, 톨스토이의 소설들이 정향하는 실제 삶의 차원과는 다른 삶의 차원의 묘사, 곧 그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체험한 삶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 예를 들어, 미르스키가 밝히고 있듯이 『악령』의 주인공들은 1860년대의 테러리스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작가적 경험과 이해의 외면화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렉산드르 II세 치하의 실제 러시아 속의 혁명 운동가가 아니다. 그들은 현실의 혁명가를 지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존재차원의 혁명가를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단순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그려지는 19세기 후반부의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나 혁명가들의 실제 모습을 찾기 위함

4) D. S. 미르스키, 『러시아 문학사 I』, 이항재 역, 1984, 흥성사, pp. 313-314.

5) D. S. 미르스키, 『러시아 문학사 I』, p. 316.

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른바 ‘가장 높은 정도의 리얼리즘’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도스토예프스키 당대 현실의 혁명 운동가적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그 속에서 떠오르는 러시아의 미래 세계에 대한 작가의 정신적, 영적 예표의 유형들을 살피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한 세대 후에 도래할 혁명을 맞게 되는 러시아 사회에 대한 예언자적 도스토예프스키의 정신적, 예술적 사유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현재적 적실성을 갖는 사유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2. 가운데 말

2.1. 찬(贊)/반(反) 혁명 작가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 수용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와 혁명’에 관한 선행연구는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도스토예프스키를 찬(贊)혁명주의자로, 혹은 반(反)혁명주의자로 상이하게 이해하여 왔지만,⁶⁾ 도스토예프스키가 혁명에 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6)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의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의 부침을 겪는다. 1920년대 도스토예프스키의 연구는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백 권의 연구서와 논문들이 출판될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었고, 2차 세계대전 전까지도 비록 연구서와 논문들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1946년 작가 탄생 125주년을 기념으로 많은 출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다노프 반동정책으로 인해 10여 년간 도스토예프스키의 연구 출판이 금지되었다. 그 후 작가 사망 75주년이 되던 1956년 이후에 연구가 재개되었다. 이러한 소비에트에서의 도스토예프스키 연구의 부침은 그의 창작의 이데올로기와 철학적 가치가 소비에트 사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소비에트 비평가들의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것은 곧 도스토예프스키의 혁명인식에 관한 옹호와 비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제정 러시아 및 소비에트 러시아 시대의 도스토예프스키 비평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시오. Vladimir Seduro (1957), *Dostoevski in Russian Literary Criticism (1846-1956)*,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1917년 10월 혁명 당시 레닌과 볼셰비즘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했고, 1919년 말 소비에트 러시아를 탈출해 파리로 망명길에 올랐던 우익 비평가 메레쥬코프스키(Д.Мережковский)가 ‘1905년 혁명’ 이후 도스토예프스키 사망 25주기를 맞아 쓴 글은 20세기 초의 러시아 인텔리겐치아들이 도스토예프스키의 혁명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메레쥬코프스키의 “비록 그 자신(도스토예프스키-논자)이 끝없는 부동의 요소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지만, 실은 그는 이 폭풍의 요소, 끝없는 운동의 요소를 자신 안에 지니고 다녔다. 그는 반동인 척했지만, 혁명이었다.”라는 언급이나,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 혁명의 예언자이다.”(「러시아 혁명의 예언자(Пророк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1905)⁷⁾라는 언급은 우익의 입장에서 바라본 ‘도스토예프스키의 혁명에 대한 정향’을 방증한다. 메레쥬코프스키는 적어도 ‘1905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자유의 폭풍 속에 있는 신의 입으로부터의 호흡(дыхание уст Божиих в этой буре свободы)”으로 느끼며 환영했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의지했다고 판단한 제정 러시아의 ‘정교(православие)’, ‘전제정치(самодержавие)’, ‘러시아 인민주의(русская народность)’를 비판하며, 실제 혁명가로서의 도스토예프스키가 기대한 것은 외피로서의 이 요소들 속에 감춰져 있는 참된 러시아, 고난과 러시아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전(全)인류에 대한 봉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재탄생할 신정주의적인 러시아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10월 혁명 직후 1920년대 소비에트 문학비평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마르크스주의 비평가의 한 사람이었던 페레베르제프(В.Ф.Переверзев)가 도스토예프스키 출생 100주년을 맞아 쓴 기념논문(「도스토예프스키와 혁명(Достоевский и революция)」, 1921)⁸⁾에서 도

7) <http://predanie.ru/merezhkovsky-dmitry-sergeevich/book/192677-propok-russkoy> (검색일: 2017년 10월 10일).

8) <http://lj.rossia.org/users/erdfkerl/33840.html> (검색일: 2017년 10월 5일).

스토예프스키를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의 입장, 즉 혁명 세력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묘사가 부정적이라는 평가와는 다르게 작가가 혁명적 격변의 본질과 프티부르주아 폭동을 충실하게 그려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페레베르제프의 견해에 따르면 도스토예프스키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 혹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을 예견한 혁명의 작가였다. 그의 다음과 같은 언급, “혁명은 잔인하고 비도덕적이다. 그것은 시체를 밟고 넘어서며 피 속에서 목욕을 한다. … 혁명은 박해와 조소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박해받고 조소받던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혁명은 멸시 받고 굴욕 받은 이들의 일이며, 그들의 영혼 속에는 단힌 기관 속의 증기처럼 복수의 파괴적 욕망, 멸시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욕망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Революция жестока и безнравственна, она ступает по трупам и купается в крови, она предпочитает мучительство, издевательство, потому что совершается теми, кого мучили и над кем издевались. Революция — дело униженных и оскорбленных, в душе которых накапливается, как пар в закрытом котле, разрушительная жажда мести, жажда унижить и оскорбить.) … 혁명은 공포, 테러, 폭정을 자체가 수반한다. 왜냐하면 공포와 순종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공포와 순종을 불러일으키고자 하고, 폭군과 압제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Революция несет с собой ужас, террор, деспотизм, потому что те, кого держали под страхом и в покорности, хотят внушить страх и покорность, стремятся стать деспотами и террористами.) …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서 『악령』의 표트르 베르호벤스키가 그러하고, 그 혁명적 본질에서 스타브로긴이 그러하다. (У Достоевского таков Петр Верховенский в «Бесах», таков и Ставрогин в своей революционной сущности.)”는 그가 도스토예프스키를 높이 평가한 근거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볼셰비키 혁명의 실상을 『악령』의 세계와 비유한 페레베르제프의 견해가 1920년대 평단에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혁명직후 소

비에트 러시아가 내전 등을 거치면서, 문학과 예술 분야를 통제할 자체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었다. 세두로(Vladimir Seduro)가 밝히고 있듯이, 소비에트 러시아 시기 동안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념적 경직성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반동 작가로서, 약화되는 시기에는 혁명작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⁹⁾ 물론 이러한 경향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이 내재하고 있는 이중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젊은 청년 도스토예프스키가 페트라세프스키(Михаил Васильевич Буташевич-Петрашевский)사건을 전후로 체험한 혁명적 분위기는 시베리아 유형 시기를 거치면서 보수화되는 장년 작가의 정신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무의식적인 잠재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와 지하 혁명운동에 대한 작가의 비난은 동시에 그에 대한 동정과 변론을 동반하고, 그의 보수적 견해는 반역적인 폭발과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2.2. 젊은 도스토예프스키와 1840년대 사회주의 이념과 혁명

주지하다시피 젊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지적 세계가 형성되던 1840년대는 러시아에 다양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사상들이 형성되어 발전하던 시기였다. 특히 당시의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의 진영은 각각 내부적으로 다양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당대의 인텔리겐치아들의 대표적 사회사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두 이념 진영은 러시아의 발전 방향, 즉 러시아가 향후 추구해야 할 가치의 전범으로서 서유럽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독자적인 고유의 전통을 추구할 것인가로 크게 구별되었다. 기독교적 동양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슬라브주의는 합리주의적 세분

9) Vladimir Seduro (1957), "Dostoevski and Revolution", *Dostoevski in Russian Literary Criticism (1846-1956)*,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pp. 141-142.

과 재단을 중시하는 서구주의의 정신과 대립된다. 슬라브주의의 전체성과 전체주의에 대한 지향성은 훗날 러시아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연결된다.

러시아의 민중이 겪는 가난과 고통, 부정의에 대한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분노와 항의는 러시아 사회주의 이념의 배양과 공산주의 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러시아 인텔리겐치아들의 제정 러시아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이해는 불완전한 세계, 악으로 가득한 세계를 창조한 신에 대한 불신으로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신론자가 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품게 된 민중을 향한 동정과 연민은 러시아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변혁 운동을 이끈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사회주의와 혁명에 대한 이해도 역시 작가의 청년 시절인 1840년대 러시아 사회의 사회주의 이념의 담론과 담론을 주도하던 인텔리겐치아들에 대한 이해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비록 1840년대의 러시아 사회에는 어떤 종류의 혁명적 활동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헤겔 철학과 마르크스 철학의 사상적 영향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 혁명의 사상적 토대는 도스토예프스키가 활동하던 1840년대부터 1880년대 사이에는 주로 페트라세프스키, 벨린스키, 네차예프, 체르니셰프스키 등의 배아적 형태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움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베르다예프(Н.Бердяев)의 러시아 사회주의 이념의 발전 3단계 설을 받아들인다면,¹⁰⁾ 도스토예프스키가 경험한 사회주의는 전 2단계, 즉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인민주의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는 도스토예프스키 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페트라세프스키 모임과의 연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가인 샤를 푸리에(1772-1837)의 러시아 제자임을

10) 베르다예프는 러시아 사회주의 이념이 발전하는 3단계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утопический социализм), 인민주의적 사회주의(народнический социализм), 과학적 혹은 마르크스적 사회주의(научный или марксистский социализм)로 구분하고 있다. Н. А. Бердяев (1990), *Истоки и смысл русского коммунизма*, Репринтное 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издания YMCA-PRESS, 1955 г. М.: Наука, с. 27.

자칭하고, 또 도스토예프스키와 동년배였던 페트라세프스키(1821- 1866)에게 도스토예프스키가 받은 사상적인 영향에 관한 보고는 연구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작가가 이 모임(“금요일(пятницы)”)에서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으로 참석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작가가 당시 인텔리겐치아의 사회주의적 분위기에 적잖이 공감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곧 페트라세프스키로 대변되는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한 작가의 공감과 이해는 이후 러시아 민중의 힘겨운 삶의 현실에 대한 자각과 동정으로 발전하여, 당시에 인텔리겐치아들 사이에 확산되던 인민주의 운동을 접하게 만들었다. 고난당하는 민중에 대한 공감과 동정은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의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태도이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작가의 첫 번째 후기 장편 소설 『죄와 벌』에서 만날 수 있다.

2.3. 『죄와 벌』 속의 러시아 사회주의 이념

1865년 9월 중순, 유럽 여행 중이던 도스토예프스키가 비스바덴에서 출판업자 카트코프(Михаил Катков)에게 자신의 미래의 소설에 관한 구상을 밝히는 편지를 쓴다. “중편소설(повесть)의 아이디어는 … (중략) 어느 범죄자의 심리적인 보고서입니다. 오늘날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젊은이는 학업을 중단한 대학생으로 소시민 출신이고, 극도의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공중에 떠도는 어떤 이상한 ‘미완성’의 이념들에 젖어있고 생각이 경솔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서 단번에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중략) 그는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고, 지주들의 집에서 시중들며 살아가는 누이동생이 이 지주 가정의 가장의 음탕한 요구, 그녀를 파멸시키는 위협적 요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학업을 마저 끝마치고, 외국에 가서 평생을 ‘인류에 대한 휴머니즘적인 의무’를 명예롭고 굳건하게, 또 우직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 (하략)¹¹⁾ 작가의 구상 속의 이 젊은이는 그 후 소설의 주인공 로디온 라스콜니코프로 형상화된다. 소설 속의 라스콜니코프와 그의 모친, 누이가 처한 극도의 빈곤과 굴욕적이고 절망적 상황, 또 고리대금업자 전당파 노파로 대표되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경제적 사회상은 1860년대 인텔리겐치아들의 사회인식일 뿐 아니라 작가의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갑자기 그(라스콜니코프-논자)는 재빠르게 온몸을 굽혀 바닥에 엎드리더니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소냐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마치 미치광이를 피하듯 그에게서 물러섰다.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아 보였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저 같은 사람 앞에서!” 그녀는 파랗게 질려서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아프도록 죄어 들었다.

그는 곧바로 일어섰다.

“나는 당신에게 질을 한 게 아니야. 나는 인류의 고통 앞에서 질 (이텔릭 강조-논자)을 한 거야.”¹²⁾

따라서 라스콜니코프의 ‘인류의 고통 앞에서의 질’은 곧 민중이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인텔리겐치아들의 동정과 연민, 이해의 표지이다.

그런데 작품 『죄와 벌』에는 또한 1860년대 러시아 사회의 사회주의자가 직접 소개되어 등장하기도 한다. 작중 인물 안드레이 세묘노비치 레베쟈트니코프는 속물적인 변호사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에게 한 때 후견을 받았던 가장 급진적인 진보주의 사회주의 청년으로 소개된다. 지방 출신의 니힐리스트이며, 당시 유행하던 수도의 사상가들의 한 사람인 그는 매우 흥미롭고 신화적인 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당대의 기성

11) Н. Ашимбаева, В.Бирон (2009), *Музей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еребрянный ве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 39.

12) 『죄와 벌』, 김희숙 역, 을유문화사, pp. 79-80.

세대가 이 서클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서클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인간을 경멸하며 폭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루진의 시선에 의하면 레베자트니코프는 저속하고 우둔한 인물이다. 외양 묘사(몸에 수분이 부족하고, 임파선 종기와 눈병을 앓고 있으며, 작은 키, 옅은 빛깔의 머리털, 자랑스럽게 여기는 커튼릿 모양의 볼수염)나 행동거지(허약하고 작은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감에 찬 거만하게 들리기까지 하는 말투, 교의와 사상, 체계를 갖고 논쟁을 즐긴다)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가 어렵지만, 한편 관청에 근무하며 마음은 부드럽고, 술주정을 하지 않고, 방세를 꼬박꼬박 내는 세입자이기도 하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이 세묘노비치는 사실 좀 얼빠진 데가 있었다. 그는 진보와 ‘우리의 젊은 세대’에 합류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성급한 열정에 휩쓸려서였다. 이 사나이는 최신 유행 사상이 라면 어김없이 단박에 달라붙어 그것을 저속하게 만들어 버리고, 때로는 자신들이 가장 성실하게 섬기는 것조차 눈 깜짝할 새에 모조리 희화화해 버리고 마는 저속한 인간과 허약한 팔사동이와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거만한 반(半)똑똑이들의 무수하고 잡다한 무리 중의 한 사람이었다.”¹³⁾

계속해서 “젊은 세대에 합류하고 있는” 레베자트니코프는 푸리에의 체계와 다윈의 학설을 설명할 수 있는 젊은이이지만, 저속하고 우둔한 인간일 뿐 아니라, 어찌먼 거짓말쟁이이고 서클에서 중요 위치를 차지한 인물은 아니면서 그저 좀 들은 풍월을 읊을 줄 아는 정도의 인물로 소개

13)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2012), 『죄와 벌(상, 하)』, 김희숙 역, 을유문화사, pp. 153-154. 이 후 논문의 『죄와 벌』의 인용은 이 번역본에 의한 것이다. 『죄와 벌』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의 인용 출처를 논문의 본문에서 밝히는 경우, 참고 문헌에 있는 각 작품의 번역본의 쪽수임을 밝힌다.

된다. 인도주의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폐결핵을 앓고 있는 소녀의 계모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주먹다짐을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이고 회화된 인물로서의 레베자트니코프의 언급은 다른 한편 당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가 러시아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었는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는 메스친스카야 거리에 창설될 ‘코뮌’에 루진이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실제로 이러한 코뮌들이 푸리에와 체르니셰프스키의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의 영향으로 페테르부르크의 진보적인 청년들에 의해 세워지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도시 공동숙사로 시작하여 진정한 생활 공산체로 나아가기를 꿈꾸고 있었다.¹⁴⁾ 레베자트니코프의 언급에 따르면 이 코뮌에서는 기존의 러시아 사회의 가족제도, 창녀제도, 사유재산제도, 종교제도 등에 대한 공격을 추구한다. 코뮌에서는 가족 제도에서 아내가 정부(情夫)를 두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의 허락이 없는 자유결혼을 허용하며, 자녀와 남편을 둔 여인이 편지 한 장으로 가정을 등지고 코뮌의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된다. 창녀제도 역시 찬성한다. 소녀에 대한 레베자트니코프의 견해를 묻는 루진의 질문에 대해 그는 그녀의 행위는 미래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근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에서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자본이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답한다. 그녀의 역할은 미래 사회에서는 조화롭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에 대한 태도에서는 러시아 정교전통의 영아 침례를 부정하고, 마르멜라도프의 추도연과 같은 행사는 추악한 편견에 불과하고, 사제들의 필요성을 거부한다. 또 미래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싸움과 같은 물리적인 완력에 의한 충돌은

14) 작품에서 언급되는 스레드나야 메시찬스카야 거리에는 에르첼레브이 골목에서 옮겨 온 코뮌이 있었고, 후에 이 코뮌의 구성원들은 바실리에프스키 섬의 7번가에 있는 방들을 빌렸는데, 이들 중에는 요새감옥에서 형기를 마친 니힐리스트들, 재봉 공장에 참가했던 여성 니힐리스트들도 많았다고 한다.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상, 하)』, 김희숙 역, 역자 주 p. 481 참조.

사라질 것을 믿고 있다.

레베자트니코프의 말을 통해 상세히 전해지는 1860년대의 러시아 코뮌에 대한 보고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당대의 러시아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이자 프랑스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이해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간이 어떤 상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좌우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환경에 달려 있으며,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레베자트니코프의 인간관은 직접적으로는 체르니셰프스키의 소설(『무엇을 할 것인가?』)의 주인공들과 공유하는 인간관이지만, 그 사상적 기원은 푸리에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작품에서 레베자트니코프의 말과 행동으로 그려지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는 현 사회체제에 대한 저항 그 자체를 당면한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자신의 부모가 이미 고인들이 된 까닭에 자신이 자유결혼을 선언함으로써 부모님을 놀라키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레베자트니코프-필자)의 저항으로 그 분들(레베자트니코프의 부모-논자)에게 정말로 심각한 타격을 주기”(2권 160쪽)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가 소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존경한다고 밝히는 것은 그녀의 행동이 자기희생적인 가족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소녀-논자)의 행동이 기존 사회제도에 대한 강력하고 인격화된 저항으로”(2권 161쪽)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 현실 속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는 작가의 이해에 따르면 현 체제의 질서와 제도의 부정 및 저항과 충격을 목표로 하며, 파괴와 전복 그 자체를 궁극적 목표로 한 ‘부정을 위한’ 윤리적 정치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이념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또 다른 후기 장편소설 『악령』에서 음산한 혁명가들로 연장 발전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는 『악령』에서의 혁명가들을 만나기에 앞서 『죄와 벌』에서의 사회주의적 이념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차원의 러시아 사회주의적 이념의 토대를 밝히는 『백치』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 『백치』 속에 나타나는 사회주의 사상

소설 『백치』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조카 딸 소피아 이바노바에게 쓴 편지(1868년1월1(신력-13)일)에서 직접 밝히듯이,¹⁵⁾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기 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즉 백치 주인공 미슈킨(Мышкин) 공작 속에 구현되는 자질들, 겸손과 이타주의,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또 자신의 사회적 귀족신분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그가 이국(異國) 스위스에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것처럼 다른 권역의 초월적 세계의 인물처럼 행동하는 것 등은 끊임없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설에는 사형 집행과 죽음, 미의 파멸, 폭력적일 정도의 무심한 자연 등과 같은 주제가 부활에 대한 강한 의심과 기대를 배면화하면서 등장한다. 또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 소설에서 주목할 것은 이 소설 속에 배경으로 설정된 1860년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대상이다. 작품의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윤리적, 도덕적인 죄와 부정에 연루되어 있으며, 정신적인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전체가 이성과 도덕적 전통을 상실하고 ‘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작품의 등장인물인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당시 젊은이들의 이념적 혼란상을 “혼돈과 추함(Хаос и безобразия)”으로 정의하듯 많은 이념들이 극단화되는 시기이다. 주인공 미슈킨은 이런 당대 젊은이들의 문제점이 무엇보다 신앙의 상실, 신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무신론!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일부 집단에서만 신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략) 근본을 상실한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15) Константин Мочульский (2000), *Жизнь и творчество Достоевского*, YMCA Press (Paris, 1947)(『도스토예프스키 1, 영혼의 심연을 파헤친 잔인한 천재』, 김현택 옮김, 책세상, pp. 500-501.

다. 그러나 유럽 권에서는 이미 민중들이 결성한 극우 단체들을 필두로 하여 신을 부정하고 나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무지와 허위를 대상으로 싸웠지만, 지금은 비뚤어진 광신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투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중략) 비단 신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요. 생각 이상으로 우리와 밀접합니다.¹⁶⁾

그런데 앞의 미슈킨의 언급에서 밝혀지듯이 러시아의 무신론은 서구에서 시작된 무신론의 영향으로 이제 러시아 사회의 삶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그가 무신론과 사회주의가 한 뿌리를 갖은 형제이며, 이것이 로마 가톨릭과 그 교리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무신론은 “돈과 하잘 것 없는 속세의 권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경건함과 진실함, 소박함을 가장한 채 자기들이 얼마나 민중에 대해 뜨거운 애정을 간직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애쓰는” 가톨릭의 반(反)그리스도적인 상황에서 잉태되었으며, 가톨릭에 대한 증오로 그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역사적으로 로마 교황은 교회령을 재산삼아 종교적 왕이 아닌 속세에 찌든 왕좌를 차지했으며, 손에는 칼자루를 쥐 채 천하를 호령했으며, 현재는 가톨릭이 거짓말에 교활함, 속임수, 맹신, 미신 등 온갖 악행을 끌어들이 그리스도의 이상을 왜곡시키고 훼손된 사상을 전파시키며, 반그리스도적 행위를 일삼는다고 고발한다. 무신론과 가톨릭에 대한 주인공의 비판은 계속해서 1860-70년대의 사회주의의 성격 규정으로 발전한다.

사회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가톨릭과 그 교리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라는 것도 그 형제나 다름없는 무신론과 마찬가지로, 가톨릭에 대한 회의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가톨릭과 반대되는 정신적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주의는 종교가 상실한 정신적

16)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2000), 『백지(상, 하)』, 김근식 역, 열린책들, pp. 1099-1100 (이후 논문의 『백지』의 인용은 이 번역본에 의한 것임).

인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인류가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려 하고, 인류 구원을 <그리스도>가 아닌 <폭력>을 통해 얻으려한다는 점은 가톨릭과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역시 폭력에 의한 자유, 칼과 피에 의한 결속을 다지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을 믿지 마라, 사유재산도 가지지 마라, 개성도 살리지 마라, 2백만 민중이여!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fraternite ou la mort.> 그들이 하는 짓거리로 보아 어떤 부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백치』, p. 1101)

도스토예프스키는 긍정적 주인공을 통해 사회주의의 특징을 무신론, 사유재산제도의 부정, 개성의 무시, 집단주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1860-70년대 러시아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인민주의적 사회주의의 성격의 기원이 로마 가톨릭에 있다는 인식이다. 사회주의가 ‘폭력’으로 인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인식은 다음 작품인 『악령』에서 전면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고, 사회주의의 무신론적 성격은 작가의 마지막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대심문관」에서 정점을 이루며 논의된다.

2.5. 『악령』과 사회주의 혁명가

주지하다시피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의 집필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은 ‘네차예프(Сергей Геннадьевич Нечаев: 1847-1882)’ 사건(1869년)이었다. 젊은 혁명가 네차예프가 자신의 비밀결사조직에서 이탈한 대학생 이바노프를 조직원들과 집단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호수 속에 유기한 이 사건을 접한 도스토예프스키는 비록 작품의 예술성이 소멸되더라도, 혁명운동에 반대하는 정치경향성을 띤 작품을 쓰기로 결심한다. 이 사건은 작품에서 샤토프의 살해사건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작품의 텍스트 사(史)¹⁷⁾가 밝혀주듯이 소설은 창작과정에서 주인공 스타브로긴이 등장하

면서 초기의 정치 팜플렛적인 성격에서 ‘신과 인간의 자율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적 성격으로 발전하게 된다. 실제로 이 소설은 표트르 베르호벤스키가 이끄는 5인조(비르긴스키, 톨카첸코, 샤토프, 램신, 쉬갈료프)가 벌이는 살인, 방화, 음모, 폭동 등의 외적 사건과 스타브로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인신사상, 슬라브주의, 유물론 등의 사상적, 정신적인 내적 사건의 중층구조를 갖는 소설로 고찰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주제 ‘혁명’과 관련하여 작품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표트르와 5인조의 살인사건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기구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비록 화자는 계속해서 표트르 베르호벤스키가 조직하고 가담하고 있는 조직의 실체와 그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표명하지만, 살인 사건을 비롯하여 외적 사건의 실질적인 주동자인 표트르는 작품 곳곳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극단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전제적인 조직체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니힐리스트이자 냉소주의자로서 부정부적인 폭동과 파괴를 주장하는 표트르와 그가 이끄는 혁명적 5인조 조직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한 것은 램신의 자백에서 밝혀지듯 “사회 기반을 조직적으로 흔들고, 그 모든 토대를 조직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은 뒤, 그런 식으로 혼란스럽고 병들고 쉬어 터진 냉소적인 불신 사회를, (중략)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단숨에 손아귀에 넣으려는”(p. 1339)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살해되고, 방화사건이 발생하는 등 도시 전체가 온갖 소요와 혼란의 무질서 상태에 빠진다. 긍정과 건설의 사회운동이 아닌 부정과 파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 혁명가들의 모습은 사회주의 혁명가보다는 오히려 아나키즘 운동가들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 작중 인물 표트르와 그의 조직의 활동상은 네차예프가 작성한 「혁명가를 위한 입문서」에 기초한다.¹⁸⁾ 혁명가는 가족, 친구, 조

17) 콘스탄틴 모츨스키(2000), 『도스토예프스키 2, 영혼의 심연을 파헤친 잔인한 천재』, 김현택 옮김, 책세상, pp. 599-692.

국을 갖지 않으며, 그의 모든 존재 목적은 혁명과 반란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살인을 포함한 어떤 범죄도 허용할 수 있다는 혁명가 활동 원칙을 담고 있는 이 서적은 금융주의적, 반사회적, 반윤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악령』 속의 혁명 운동에 가담한 젊은 이들의 모습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도 인정했듯이,¹⁹⁾ 우리는 표트르 베르호벤스키를 비롯한 5인조의 모습이 네차예프를 비롯한 당대의 실존 인물들의 초상화가 아니며, 작가가 네차예프 사건에서 포착한 러시아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속에서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보다 정확하게는 희화화한 인물이라는 점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적 형상화의 과정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진단하고 있는 당대 혁명적 운동의 이념적 기원이 드러난다.

표트르의 5인조의 한 구성원인 쉬갈료프는 이 조직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다. 표트르가 푸리에라고 칭하는(p. 834, p. 1280) 쉬갈료프는 인류를 불균등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격의 자유를 얻는 1/10이 나머지 9/10에 대한 무한한 권리를 얻는 사회를 주장한다. 미래사회에 대한 쉬갈료프시나(шигалёвщина)의 요체는 결국 앞선 작품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코프의 역사는 소수의 “비범한 사람들(необыкновенные люди)”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обыкновенные люди)”을 지배한다는 주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쉬갈료프는 라스콜리코프와 논리적 궤를 같이 하면서도 더 나아가 미래사회는 ‘무한한 자유에서 출발하여 무한한 전제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선언한다(p. 804). 표트르도 쉬갈료프의 이 사회공식을 인정하고 좇고 있다. 표트르는 쉬갈료프의 평등이론을 취하여, 일반

18)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서적을 구입하여 매우 주의 깊게 읽었다고 한다. Н. Ашимбаева, В. Бирон (2009), *Музей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еребрянный ве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 62.

19) 콘스탄틴 모츨스키(2000), 『도스토예프스키 2, 영혼의 심연을 파헤친 잔인한 천재』, 김현택 옮김, 책세상, p. 619.

사람들의 교육, 과학, 재능의 수준을 낮추어 그들 가운데 노예적인 무인격의 절대 평등사회를 건설하고, 그 속에서 상호 감시와 밀고를 통해 서로를 견제하며, 이들은 다시 소수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미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미래 세계의 통치자로서 자신의 “우상”, “선구자”, “태양”이라고 일컫는 스타브로긴을 추대하고자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표트르가 건설하는 이 유토피아적 사회는 쉬갈료프가 9/10의 대중을 통치하고, 쉬갈료프 위에 표트르 자신과 스타브로긴이 있고, 다시 그 위에 교황이 다스리는 체제로 초기에 계획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당면한 현실을 고려하여 쉬갈료프도 배제하고, 교황도 배제한 채 전적으로 스타브로긴을 새로운 세계의 지도자로 추대하고자 한다. 표트르의 계획 속의 이와 같은 유토피아적 공산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의 발전경로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독특한 고유의 전망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신을 상실한 사회에서 도덕 법칙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비범인’으로 인식한 경우, ‘평범한 이들’을 밟고 넘어 그들 위에서 군림하되, 그들의 자유를 담보로 물질적인 궁핍, 복지를 해결하는 세계를 건설할 것이며,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이 ‘평범한 이들’에 속한 것으로 인식한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이들을 결집하여 공산주의적 집단을 구성하여 자유로운 개인들을 절멸시키게 될 것이다. 이때 공산주의적 집단은 필연적으로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 좀 더 편리한 이데올로기로써 지도자에 대한 영웅 신화를 퍼뜨려 궁극적으로 대중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확보할 것이다. 따라서 표트르는 스타브로긴을 러시아 민화의 사랑스런 주인공,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은 성공을 거두는 “이반 짜레비치(왕자)”로 칭하지만, 그 본질은 스타브로긴이 밝히듯이 “참칭자”(『악령』, p. 843)이다.²⁰⁾ 결국 러시아

20) 주인공 니콜라이 스타브로긴은 페트라세프스키의 동료였던 스페슈네프(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Спешнев: 1821-1882)를 모델로 했다고 논의된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와 마찬가지로 페트라세프스키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 감금, 시베리아 유형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기존의 사회제도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한 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회주의 세계의 지도자 스타브로킨은 궁극적으로 거짓 평등과 평화로 대중을 기만하는 이반 왕자의 참칭자일뿐이다.

쉬갈료프쉬나 속의 인류의 두 분류로의 구분이 『죄와 벌』의 라스콜니코프의 사상의 반복이고, 표트르의 혁명적 활동이 가져오는 세계와 교황제의 연관성이 『백치』의 미슈킨 공작의 교황제도 비판과 연속성을 갖는다면, 스타브로킨이 지적하는 참칭의 문제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대심문관의 ‘참칭’의 문제로 이어진다.

2.6.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사회주의 혁명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한 편의 예술적 완성작이지만, 작가의 초기 구상 속에서는 주인공 알료샤가 수도원을 떠나 세속에서 펼치는 삶의 이야기가 후속편으로 계획되고 있었다. 작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으되 미완성된’ 소설로 남은 이 작품은 즉 작가가 밝히고 있듯이, 러시아의 젊은 세대의 운명과 러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구현할 대규모의 작품이었다.²¹⁾ 따라서 우리는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 알료샤가 겪은 13년 전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1860-70년대의 러시아 젊은이들의 모습, 특히 우리의 주제 ‘혁명’과 관련한 사회주의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작품에서 자신을 사회주

과 복권의 과정을 거친다. 스페슈네프는 외유의 경험을 가진 지주의 아들로서,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비록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작가의 사망 이후 시점인 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인물은 이미 40년대부터 등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스타브로킨의 형상 속에는 스페슈네프와 당대의 또 다른 급진적 사상가인 바쿠닌의 모습이 발견된다. Н. А. Бердяев (1990), *Истоки и смысл русского коммунизма*, с. 28.

21) Н. Ашимбаева, В. Бирон (2009), *Музей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еребрянный ве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 78.

의자로 자칭하는 인물은 13세 소년 콜라 크라소트킨이다(10편, p. 38, p. 93). 만민평등 사상과 공동재산제, 결혼제도의 부인을 사회주의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소년은 세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신의 존재를 인정하되, 신에 대한 믿음 없이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중의 가치를 인정하되, 그들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으며, 사회의 각층을 흔들기를 좋아한다고 밝히는 그는 사회주의 이념을 체화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결국 조숙한 소년은 미하일 라키친 신부와의 대화에서 얻게 된 사회주의 사상을 어설피 설파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라키친은 알료샤의 친구로 수도사이다. 그는 이반의 사상, “영혼의 불멸이 없으면 선행도 없고, 따라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그는 인류는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선행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내부에서, 자유와 평등, 평화에 대한 사랑 속에서 그 힘을 찾아낼 것으로 믿는 인물이다(2편, pp. 171-172). 반대로 라키친이 엿들어 스스로 전하는 이반의 라키친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라키친이 수도원장이 될 출세의 마음을 포기하고 수도사의 길을 버린다면 수도 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자유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취향의 사회주의적 잡지를 발행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재산가가 되어 네바 강변의 큰 건물의 소유주가 될 인물이다. 게다가 라키친은 돈을 위해, 그리고 친구 알료샤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기위해 알료샤를 그루센카에게 인도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사회주의자는 콜라와 같은 어린 소년이거나 혹은 라키친처럼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인물이다. 콜라의 장래에 대한 알료샤의 진심어린 염려와 라키친에 대한 이반과 화자의 평가와 폭로는 당대 러시아의 젊은이들에 대한 진단이자,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우려 섞인 기대이다. 특히 러시아 정교의 신앙공동체인 수도사 집단 내에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는 사회주의자가 잠재하고 있는 것은 이 공동체 구성원의 비(非)균일성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신앙 자체의 순수성과 단일성에 대한 회의를 내포한다.

이반이 쓴 서사시 ‘작품 속의 작품’ 「대심문관」은 90세 노인 추기경의 상실되고 변질된 신앙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칭하여 건설된 반(反)그리스도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추기경이 고백하듯, 추기경 중심으로 건설된 새로운 신의 왕국에서는 ‘무섭고 지혜로운 영’이 예수를 유혹했던 ‘기적’, ‘신비’, ‘권위’를 통해 평범한 인간들을 복종시키고, 대신 ‘빵’을 제공하여 물질의 문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추기경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는 기적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을 원했기 때문에 ‘돌을 빵으로 바꾸는’ 기적을 거부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자유로운 선택이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의 집단(추기경)이 ‘자유로운 선택’과 ‘양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인간을 노예로서의 인간,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를 상실한 인간으로 만들어 관리한다. 또한 대심문관과 그 집단은 언제나 전(全)세계적이고 총체적인 결함을 추구하는 인류를 카이사르의 칼을 움켜쥐고 위대한 정복자 티무르, 징기스칸들처럼 지배하여 전 세계적인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반의 서사시에서 그려지는 대심문관이 건설하고자 하는 왕국을 로마 가톨릭 국가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료샤가 이 작품의 자유의 해석이 결코 정교의 해석도, 로마 가톨릭 전체의 해석도 아닌 가톨릭의 가장 악한 이들, 예수회교도의 해석이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이 왕국을 단순히 서사시 「대심문관」의 시대배경인 16세기, 또는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쓰인 19세기 후반 로마 가톨릭 국가로 특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예술적 창작물로서의 서사시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보다는 로마 가톨릭 국가로 상징되는 무신론적 사회와 국가가 인간의 정신적 자유의 부정의 결과로 종국에 맞이하게 될 상황, 즉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 영역이 지배되는 상황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예견이자 경고로 읽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 장편소설 중에 등장하는 많은 니힐리스트와 사회주의적, 혁명적 인텔리겐치아, 예를 들어, 『죄와 벌』의 레베자트니코프, 『악령』의 표트르 베르호벤스키와 5인조,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사회주의자 콜라와 라키친은 희화되고, 비난 받고, 고발된다. 심지어 『백치』와 「대심문관」에서는 로마 가톨릭 국가가 무신론과 사회주의의 온상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체제와 사회가 모두 궁극적으로 ‘정신의 자유’가 박탈된 세계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텔리겐치아에 대한 고발정신은 인간의 정신의 자유에 대한 옹호이자, 1860-70년대 러시아 사회, 정교, 국가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계에서 행해질지 모를 정신적 부자유 의 상징, 곧 ‘대심문관’의 추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혁명적 사상이다.

3. 맺음말

러시아 공산혁명(1917년 10월²²⁾)이 발생한지 100년이 지난 현재, 인류 역사의 전대미문의 공산혁명이 건설한 소비에트 국가는 사라졌다. 이제 그곳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정치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러시아 공화국이 계승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세계의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러시아에서조차 ‘러시아 공산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차원의 행사는 찾아보기

22) ‘러시아 10월 혁명’은 1917년 10월 25일 ‘제2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볼셰비키가 사회혁명당 좌파의 지지, 그리고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의 일부가 볼셰비키의 무력 위협에 대한 항의로 퇴장하면서 당 권력을 장악하고, 무장봉기를 준비하던 레닌과 군사혁명위원회가 임시정부로부터 10월 26일 항복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1917년까지 러시아의 역법은 오늘날 서유럽(및 오늘의 한국)에서 사용되는 그레고리안력과 달리 율리우스력을 사용하였다. 이 율리우스력은 19세기에는 서구력보다 12일, 20세기에는 13일이 늦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는 11월에 발생했다.

쉽지 않다.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러시아 공산혁명은 이제 저 멀리 유럽의 주변부에서 벌어졌던, 이제는 ‘망한’ 국가의 역사적 사건이며, 동시에 공산국가를 아직 머리에 지고 있는 분단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부정적 역사 유산으로 기억될 뿐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혁명이 발생한 20세기 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의 신문들은 놀랄만하다... 파리에서의 폭동, 리옹에서의 폭동, 벨기에에서의 혁명, 콘스탄티노플에서의 혁명, 불가리아에서 소비에트의 승리, 코펜하겐에서의 폭동. 사실상 전 유럽이 움직이고 있고, 비밀의 혹은 공개적인 소비에트들이 모든 곳에서, 심지어는 연합국 군대에서 출현하고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²³⁾

혁명이 발생한 당시 유럽의 상황을 전하는 기사에는 고양된 혁명적 기대와 흥분이 흠뻑 묻어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류 사회의 진보를 확신했던 19세기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농민, 노동자의 착취와 신분 계급적 사회적 모순을 제거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헌법(основной закон, 1918)’으로 내세운 소비에트 러시아의 등장은 기독교 성경의 복음서의 실현과도 같은 흥분할 만한 사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은 삶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한다. 곧 역사는 인간의 자아의 실현 과정의 산물이다. 그러나 역으로 역사는 인간의 삶의 성격을 규정하며, 인간의 운명이 되기도 한다. 러시아 공산혁명은 오늘 한국 사회에서 때로는 추상적 역사적 실제로만 기억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우리 삶의 구체적 사실과 현실로 옮기면, 러시아 공산혁명은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 깊이 투영되어 있으며, 보다

23) Victor Serge, “80 Years Since the Russian Revolution”, *International Socialist Review* Issue 3, Winter 1997. 이 기사는 서울대학교 ‘러시아학 특강’에서 이근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러시아 혁명의 조명’(2017년 10월 13일)에서 소개된 바 있음.

직접적으로는 나의 삶의 현실과 운명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혁명적 작가인가, 보수적 작가인가? 이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는 예술창작적인 특성에서 매우 혁명적인 작가였으며,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작가라고 답한다. 그의 창작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은 격렬한 운동 속에 놓여 있으며, 무정형의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작가 일기』 등에서 보이는 그의 정치사회적 태도는 매우 보수적인 면모를 띠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후기 장편소설에서 보이는 작가는 혁명적 인텔리겐치아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러한가? 도스토예프스키의 혁명적 인텔리겐치아에 대한 거부는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혁명적 운동이 실현하려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무신론에 입각한 사회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정신의 자유의 부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가가 보기에 인텔리겐치아가 주장하는 사회주의 혁명은 빵과 물질적인 행복을 위해 정신의 자유를 소수의 무리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었다. 곧 대심문관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가톨릭 성직자 계급이 종교적 진리와 이념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지배하는 상황을 고발하는 「대심문관」은 무신론적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사회에 대한 경고이며, 현실과 미래의 ‘대심문관’ 출현에 대한 경계이다.

농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그들에 대한 부채 의식을 지닌 19세기 후반기의 러시아 인텔리겐치아 계층의 전형들이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때로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로, 때로는 인민주의적 사회주의자들로, 또 일부는 『지하로부터의 수기』의 지하생활자처럼 몽상가로, 혹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폭력을 행사하며 권력을 추구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는 일반적으로 이들 가운데 니힐리스트, 사회주의자, 혁명적 운동가들을 새로운 사회의 건설자 혹은 조직자라기보다는 단순한 파괴자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혁명가의 모습은 억압받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동정에 영감을 받은 고귀한 옹호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추동되어 권력을 잡으려는 음산한 인물로 그려질 뿐이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그려지는 혁명적 움직임 속의 사회에는 그 어떤 이상적인 모습도 존재하지 않는다. “폭정이 없다면 자유도 평등도 없을 것입니다.”라는 포트르 베르호벤스키(『악령』)의 언급은 ‘가장 높은 정도의 리얼리즘(реализм в высшей степени)’의 작가의 볼셰비키 혁명 직후의 소비에트의 사회상황에 대한 예언이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Ф.М.Достоевский,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десяти томах*, Гос. изд.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М., 1956.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2012), 『죄와 벌(상, 하)』, 김희숙 역, 을유문화사.
- _____ (2008),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1, 2, 3)』, 김연경 역, 민음사.
- _____ (2000), 『악령(상, 중, 하)』, 김연경 역, 열린책들.
- _____ (2000), 『백치(상, 하)』, 김근식 역, 열린책들.
- D. S. 미르스키(1984), 『러시아 문학사 I』, 이항재 역, 홍성사.
- 스티브 스미스(2007), 『러시아 혁명: 1917년에서 네포까지』, 류한수 역, 박종철 출판사.
- 알렉산더 라비노비치(2017), 『1917년 러시아 혁명: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다』, 류한수 역, 책갈피.
- 엘버트 린드먼(2017), 『현대 유럽의 역사』, 류한수 역, 삼천리.
- 존 톰슨(2004),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류한수 역, 회평론.
- 콘스탄틴 모츨스키(2000), 『도스토예프스키 1, 2. 영혼의 심연을 파헤친 잔인한 천재』, 김현택 옮김, 책세상.
- H. A. Бердяев (1990), *Истоки и смысл русского коммунизма*, Репринтное 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издания YMCA-PRESS, 1955 г. М.: Наука.
- H. Ашимбаева, В.Бирон (2009), *Музей Ф.М.Достоевского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еребрянный ве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 39.
- Bernard J. Paris (2008), *Dostoevsky's Greatest Characters, A New Approach to "Notes from the Underground," Crime and Punishment, and The Brothers Karamazov*, Palgrave Macmillan, NY.
- Reginald E. Zelnik (1997), "Revolutionary Russia 1890-1914", *Russia: A History*, Ed., Gregory L. Freeze, Oxford Univ. Press.
- Robin F. Miller (2008), *The Brothers Karamazov*, Yale Uni. Press, New Haven & London.

Robin F. Miller (1981), *Dostoevsky and The Idiot*,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Victor Serge (1997), “80 Years Since the Russian Revolution”, *International Socialist Review* Issue 3, Winter.

Vladimir Seduro (1957), *Dostoevsky in Russian Literary Criticism*, Ed., Ernest J. Simmons,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http://predanie.ru/merezhkovsky-dmitry-sergeevich/book/192677-propok-russkoy>
(검색일: 2017년 10월 10일).

<http://lj.rossia.org/users/erdfinkel/33840.html> (검색일: 2017년 10월 5일).

원고 접수일: 2017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1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5일

Резюме

Грядущая русская революция в романах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Идиот”, “Бесы” и “Братья Карамазовы”

Пак, ЧжонСо*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анализу отношения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к грядущей революции в России. Исходя из выделенных Н. Бердяевым трёх стадий в развитии в России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идей, — стадии утопического социализма, социализма народн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изма научного (марксизма) — в статье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утопические и народнические идеи были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Ф.М. Достоевского в течение всей его жизни.

В понимании Достоевского социализм намерен привести человечество к материализму и уравнивать веру в Бога с верой в нравственный закон. Писатель считал социализм неизбежным следствием из западного католицизма и утверждал, что идеи социализма, пришедшие в Россию с Запада, оказали в 1860-1880 годы суще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русскую интеллигенцию, вызвав отрицание человеком той эпохи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х понятий добра и зла.

* Professor,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Именно подобный герой и становится предметом изображения Достоевским в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х, начиная с романа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и завершая “Братьями Карамазовыми”.

Все значите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зднего периода творчества писателя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выведение и анализ практических следствий из принципа, в лаконичной форме сформулированного в “Братьях Карамазовых”: если нет Бога, то нет и обязывающего нравственного закона,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человеку всё дозволено, вплоть до убийства и людоедства. Наделённый сильной волей и характером человек, сбросив с себя путы нравственного закона, стремится возвыситься над обычными людьми, претендуя на статус “сверхчеловека” и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произволу руководя ими. Слабые же индивиды будут объединяться с себе подобными в коллективы по типу коммуны, всячески ограничивая свободу и преследуя отдельных её членов. Данны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неизбежно обретает лидера в фигуре “сверх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ует миф о вожде в качестве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для руководства массами идеологии, обеспечивая тем самым своё безгранич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господство.

Многие сцены и эпизоды в романах Достоевского, в которых изображены нигилисты и революционеры — носители безбожн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выполнены в мрачных, апокалиптических тонах, являя собо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едвидение и предостережение писателя относительно грядущей революционной катастрофы и будущег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ак торжества насилия и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и.